

침묵한 법정의 역사가

당일에 무려 5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5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194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는 제주도에서 3만 5 0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이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폭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는 전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지난 세기 50년대 초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들을 파괴략탈하였다. 로근리학살만행과 영동대학살만행, 신천대학살만행을 비롯하여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또한 조선전쟁 첫날부터 공화국의 도시들과 농촌들, 평화적산업시설들과 학교, 병원, 기타 문화시설들에 대해 폭격과 포격을 가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지어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세균 및 화학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전후에도 미제는 괴뢰지역에서 치밀리는 범죄행위들을 그칠새없이 감행하였다. 나물개는 소녀를 《평》이라고 쓰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 의정부집단폭간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가 감행한 살인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미군범죄자들은 예속형인 《한미행정협정》의 보호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미제는 새 전쟁도발책동도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이어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전행책동은 극히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서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일본과 괴뢰우두머리들을 워싱턴주변의 캠프 데이비드별장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을 구제화, 계획화, 공식화한데 이어 괴뢰들과 그 실행을 위한 《을지프리트 힐드》합동군사연습을 역대 최대규모에서 벌려놓았다. 이처럼 온 80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미제의 강점사는 미국이야말로 전제 조선인민에게 참혹한 전란과 불행만을 강요한 포악한 침략자, 괴에 주된 야수, 흉악한 날강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순 《혈맹》이니, 《군건한 한미동맹관계》니 하면서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친추에 용납 못할 대국역적 무리들이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의 지배와 예측을 끝장내고 윤석열역적패당을 비롯한 대국역적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인민적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온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이다!》, 《일본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강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괴뢰지역에서 이를 비호두둔해나서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법정화를 위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용인하였다고 폭로하면서 윤석열심판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일심도체로 방조한 철저한 주범이며 친일역적, 특등매국노이다. 태평양은 윤석열과 기시다의 핵스레기하수구가 아니다. 일본정부의 대변인으로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련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초분집회, 규탄시위, 총집결대회, 일본대사관함의방문 등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서울에서는 《일본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방류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집회》와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55차 초분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은 《일본핵오염수투기 철폐!》, 《윤석열탄핵!》 등의 글이 쓰여진 대형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을 들고 일본을 인류를 향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다. 지은 죄를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핵오염수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도발행위이고 핵테러행위이다. 오염수는 아무리 정화하여도 오염수인데 윤석열은 앞장에서 핵오염수방류를 묵인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뜨우려고 발방하는 일본과 이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지난 9일 또다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야당의 한 인사는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으려 했더니 결국 용인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안전하다고 선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보당》의 전 상임대표도 《윤석열은 일본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속까지 왜놈》이라고 하면서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집회와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55차 초분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은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집회》와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55차 초분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다.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은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과 전문가들 역시 윤석열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내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일본이 뼈것이 핵오염수방류를 강행한다는 기시다정부의 대변인, 둘러러, 방패막이 역할을 스스로 맡아해온 윤석열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부정과 <독도령유권> 주장에 이어 핵오염수방류문제까지 동조하는 윤석열은 일본의 하수인이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둔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이러한 투쟁은 천년속적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주고 재침의 길을 열어준것도 모자라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 미래까지 위협하는 섬나라족속들과 한 짝이 되어 돌아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하루빨리 쓸어버리려는 민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한복순



본사기자 주광일

《민생은 3종교(물가 상승, 환율상승, 리자률상승)에 심혈하는데 정국주도권잡기에 혈안이 된 여야간의 싸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는 뜻)이다.>고 하면서 《여야가 각각 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을 무기삼아 한치도 양보없이 긴장을 높여가고있다. 그러는 사이 예산심사는 멈춰있고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도 실종됐다. 민생은 좌초일보직전이다.>고 여야당것들을 비난하였다. 괴뢰야정지세력들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국의 권력확장을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 정치지배배들의 란두국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우한 정치적야욕 실현을 위한 싸움질에 미쳐 돌아가는 시정잡배들에게 민심이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제가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은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뜨한 죄악의 역사, 범죄의 역사이다. 미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괴뢰정권조작을 위한 5.10단선

인론들의 이러한 평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망해가는 집안의 살풍경

고있다. 이미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앞세워 해당 법안의 표결처리를 버리고있고 이에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언한 상태서 언제 정국파행이 빚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야사이의 치렬한 대치국면에 대해

《이런 풍경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런 풍경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윤석열이와 같이 치욕의 오명을 많이 가지고있는 추물은 없을 것이다. 두엄터미는 안으로 파들어갈수록 더 역겨운것처럼 날이 갈수록 더더욱 혐오스러움을 자아내는 역도에게는 오명도 많아 세간에서는 역도를 두고 《최고의 오명보유자》라고 부르곤 한다.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오명백화경》이라고 해야 할지.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섬나라것들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생각하는 일제강점중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도 일본을 대신하여 저들이 하겠다던 한 종류의 화신도 윤석열역적도이고 섬나라것들의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켜주는 일본군성노예(합의)의 착실한 리행을 운운하고있는 회색의 친일역적도 윤석열역적도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반인륜적인 핵오염수방류를 묵인비호하는 회색의 반역야도 윤석열역적도이다.

《이런 풍경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런 풍경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소란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르며 반발해나선 여당계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간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운완용》

리완용, 지난 세기초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의 이름으로서 오늘까지 사대매국과 반역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윤석열역적도가 바로 그 오명. 그 추명으로 불리우고있다. 성은 비록 윤가라 해도 완용이란 이름이 그 성위에 따라붙었다. 실제 역도의 짓거리들은 매국역적 리완용도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제 집 안방에 도적떼를 안내하듯이 《옥일》을 내건 일본군함을 독도수역에 끌어들이지, 일본 《자위대》가 북침에 나서게 하는것을 묵인할수 있다고 객기를 부려대지 않나. 심지어 서울의 한복판에서 왜왕 생일축하연까지 일제가 침략

《운재앙》

《운재앙》은 운재앙역적이 《통와대》에 투고있는한 《6대참사》, 《7대참사》 등 재난과 재앙은 끝이 없을 것이다. 《운무식》, 《운무능》은 그 무슨 쌍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무식》, 《운무능》

《운무식》, 《운무능》은 그 무슨 쌍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운둥이》

《운둥이》는 운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를 가래처럼 령링 비어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수 모르는 미국아 윤석열에게 꼬리치며 붙어다니는 괴수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벨듯

김태룡